

지자체 “해외특허출원 지원 확대”

도내 산·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단체장·지원기관장 초청 간담회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특성상 특허인증이 필요한데 관련 비용부담이 너무 큼니다. 전북도 차원의 도움이 있지만 현 지원수준보다 보다 나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건당 70만원인 특허비용 지원액을 다음달부터 올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8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영지원기관장을 초청해 도내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교통대책과 지식재산, 환경 등 다양한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산업·농공단지 입주자 40여 명의 대표자와 김원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업 완주군수 등 자치단체장, 전북중소기업청장, 전주세무서장, 무역협회 전북지부장 등 모두 7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단한 참석자 소개 후 김택수 전주상의 회장의 인도로 입주업체의 질의와 자치단체장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완주산단 정영진 부회장은 전주로 출퇴근하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완주산단 입구 청원초 사거리 단속가메라 점검과 송전동에서 산단방면으로 사거리 전방 30m지점에 예비신호등 설치를 건의했다. 임정업 완주군수는 완주경찰서와 협의해 신호등 설치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도내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들은 18일 전주리베라호텔에서 김원주 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김택수 전주상의 회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영지원기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주)유명화 이종화 대표는 전주제1산단 금학천이 폐수로 인해 악취와 모기가 발생하는 등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송하진 시장은 새로운 기본계획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으로 노후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와 논의 하겠다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주)트레디오 김용현 이사는 IT업종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구직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도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취업박람회를 확대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주 지사는 전북도 차원에서 취업박람회를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완주산단 공동주차장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에 대한 건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기숙사 마련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앞서 전주상의 김택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경기 전망지수가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며 “이는 모두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혁신의 힘

을 다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원주 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들도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전북도 경제 살리기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취업을 위해 2011년부터 연간 500명씩 총 2천명에 대해 1인당 8개월 동안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는 발표를 하고 기업인에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배추수입 능력대응, 가격조절 실패”

정범구 의원 “농수산물유통公, 中 현지가 폭등 조사안해”

정부와 유통공사의 배추수입 능력 대응으로 배추 값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출한 ‘배추 긴급 도입 관련 추진 일정’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배추값 폭등을 겪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 연휴가 끝난 28일에도 이르러 부랴부랴 배추 수입을 위한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롯데마트 등 민간업체에서는 배추 파동을

예상하여 예로부터 중국에서 배추 수입을 검토한 바 있다.

민간업체와 정부가 수입을 검토하는 사이, 중국산 배추에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산지 배추 가격이 급등했다.

유통공사 직원의 산지조사 출장 북명에서 따르면 배추값이 9월 초순 톤당 500위안 수준이었다가 9월 말에는 600~800위안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적거리라는 사이에 정부가 더 비싼 값에 배추를 수입하게 된 셈

이다. 이번 정부 배추 수입가격은 톤당 320불로, 6월 민간 수입원가의 3.5배이며 9월 가격의 2.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공사는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이번 배추 파동과 관련하여 배추는 유통공사가 다루는 국영무역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배추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현지 지사에서 조사한 바도 없고, 유통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통공사는 지난 06년부터

터 중국 사무소를 통해 배추값을 포함한 채소의 민간 수입원가를 조사해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보고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민간 상사의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자기네가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가격변동이 심하다면 정보보고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우리 식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배추 값이 등락하고 있는데 이를 조사해 보고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배추 수입에 민간보다도 능력대응을 하여 결국 가격이 이미 안정세에 접어들었을 때에 수입산 배추를 풀어놓아, 곧 있을 가을배추 수확시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을 일으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은행은 18일 본점에서 임원 및 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가졌다. 전북은행 제공

전북은행 3분기 순이익 505억 달성

전북은행은 18일 본점에서 임원 및 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갖고 3분기 경영실적과 4분기 전략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전북은행은 3분기중 경영실적(잠정치)으로 총영업이익 715억원, 당기순이익 213억원을 실현하여 누계기간 순이익은 50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0.86%,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4.08%로 전분기 대비 개선되었고, 안정성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은 13.25%로 견고한 자본구조를 유지했으며,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 이하여신비율은 1.

53%를 기록했다.

아울러 총자산은 3분기중 1조205억원이 증가(전분기대비 12.9%)한 8조9천155억원(전년동기대비 24.9% 증가)을 달성하여 강한 은행장 취임 이후 규모와 열세와 수익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전북은행은 4분기 전략 방향으로 순이자마진 개선, 자산 건전성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비전선포 이후 ‘최고의 은행’을 이루기 위한 변화와 혁신활동으로 마인드 혁신, 마케팅 전략, 실행전략 3개 부문에서 최고의 은행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표준규약 마련 골몰

아파트관리사무소들이 강화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이번 주택법 개정에 따라 각 아파트단지별로 다음달 5일로 마감되는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위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 발표한 상태이다.

그러나, 비의무단지를 제외한 대상 아파트단지 500여곳 중 현재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10여곳에 불과해

각 아파트단지별로 단지 특성에 맞는 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기간 내에 표준규약을 마련하지 못한 단지의 경우 입주민과의 분쟁이 불가피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입주민들 사이에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었던 층간소음에 대해 세대간 생활소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준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로,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제발효컨퍼런스 22일 개최

발효관련 신기술들의 교류의 장이 되는 2010 국제발효컨퍼런스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다.

전주국제발효엑스포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생명을 살리는 발효 미생물’을 주제로 Prof. Alojz Bomba(슬로바키아), Prof. Roberta A. Morales(미국), Prof. Fusao Tomita(일본), Dr. Wonnop Visessanguan(태국), 서진호 교수(서울대), 염성관 상무(서울정수

막걸리), 정원대(CJ제일제당)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효식품, 발효미생물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또한, 발효식품 분야의 차세대 전문인력 발굴을 위한 ‘차세대 과학자 경연대회’가 열려 15개 대학 발효식품 분야 석·박사 과정생들이 참가해 그동안의 연구 실적을 통해 발효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한다.

2010 국제발효컨퍼런스는 전주국제발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한다.

“정보화실무능력경진대회 성원 감사”

■김종구 KPC 전북센터장

“정보화실무능력 경진대회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정보전산원에서 800여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제7회 2010 전라북도 정보화실무능력경진대회와 전국대회인 제4회 i-TOP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국대회가 지역대회인 전북대회보다 늦게 출발한 특이한 경우로 이는 전북대회의 성공을 기반으로 전국대회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부터 전북도민일보와 공동으로 전북경진대회를 기획하고 성공시켜 전국대회로까지 확산시킨 한국생산성본부 KPC(주) 전북지역센터 김종구 센터장.

김 센터장은 “대회 7회째를 거듭하는 동안 전북도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왔다”면서 감사의 말로 지난 그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대회 첫째 부분은 물론 저희도 반신반의했었지요. 후원은 잘 될까?, 도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후원기관을 쫓아다니고 시험장소를 물색하는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김 센터장은 “우려와는 달리 첫째 1천여 명이 넘는 응시자가 몰렸지요. 지금은 인원을 오히려 제한할 정도.”라며 “대회가 출발부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북도민일보와 공동으로 사업에 착수한 전



전북대회 성공기반 전국대회 개최로 확산

IT시험 로열티 받고 세계 148개국 수출

력이 주효한데다 그간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모든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하모니를 이룬 결과”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과 본부 등의 노력으로 경진대회와는 별도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경우 도내에서 매년 3만여 명이 응시할 정도로 대표적인 국가자격시험으로 정착됐다.

김 센터장은 “도민들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경진대회에 필요한 대응응시료와 여타 비용은 일체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며 “경진대회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각종 후원단체의 문의도 있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일체 후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다문화 가정과

노인 등을 위해 별도로 실버 부문, 다문화가정 부문, ROTC 부문, 장애인 부문을 신설해 해당 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전북도 정보화 실무능력 경진대회를 시발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사무자동화 부문인 ITQ(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와 그래픽 분야의 GTQ(Graphic Technology Qualification)가 국가공인 자격의 우월성이 입증돼 국제 표준화 자격(ICDL)으로 채택됨으로 인해 국내 IT 자격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여,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통로를 열게 됐다.

김 센터장은 “이젠 한국의 IT시험이 로열티를 받고 전세계 148개국 42개 언어로 시행될 것이다”면서 “이달 중 협상이 최종 마무리돼 다음달 정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내년부터 IT 입문자와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기초에 기반을 둔 UTQ(Universal Technology Qualification) 자격과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와 폐해가 날로 증가되어 인터넷 윤리에 기반을 둔 IEQ(Internet Ethics Qualification) 자격을 신설,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앞으로도 한국생산성본부는 전북도민일보와 함께 전북정보화실무능력경진대회를 지속시켜 지역정보화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ppa62@

김민수기자 leo@

한국농어촌公 ‘전북홀대 너무해’

7년째 도내출신 이사 전무... 지역현안·승진인사 불이익 우려

한국농어촌공사에 7년째 전북출신 이사(理事)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분야의 대표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최고 경영진에 전북출신 무이사(無理事)시대가 장기화하면서 농촌공사의 농도 전북에 대한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사외이사 6명과 사내이사 5명(사장제외)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농촌공사가 지난9월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1명의 후임 선임을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7년간 전북출신 이사는 사

내·사의 가릴 것 없이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의 경우 현재 경남 1명 경북 2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남 1명 등으로 짜여졌고 공사의 인사 등에 관여하는 5명의 사내이사는 충남 1명(부사장), 경남 1명(기획이사), 강원 1명(유지이사), 경기 1명(지역개발이사), 전남 1명(농지은행이사) 등 모두 타도 출신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4년 전북출신 유종식 당시 총무담당 이사가 퇴직한 이후 농도 전북은 7년째 농업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마저 이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무이사(無理事)시대가 지속되고 있

다. 2조원대의 새만금 산단 개발사업을 수입하는 등 전북지역에서 대형 수익사업 쟁기에 나선 한국농어촌공사가 정작 경영진 구성에서 전북출신 등용을 외면해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농촌공사 최고 경영진에 전북출신이 전무해 지역 현안은 물론 전북출신 직원들의 승진 인사등에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공사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농도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북출신의 이사 발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GM대우오도엔테크놀로지가 출시한 ‘알페온 2.4’ 모델. GM대우 제공

GM대우 알페온 2.4 출시

GM대우오도엔테크놀로지(이하 GM대우)가 2.4리터 직분사 엔진을 장착한 월드 클래스 럭셔리 세단 ‘알페온 2.4’를 출시·판매에 돌입했다.

18일 GM대우 군산공장에 따르면 알페온 2.4모델은 북미 10대 엔진에 선정된바 있는 2.4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동급 최강 185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차체 각 부위에 최적화된 흡음재와 차음재를 적용하고 이중절합 차음 유리 사용 및 도어 3중 실링 등 최

첨단 콰이어트 튜닝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정숙성을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차체 70% 이상 초고강력 및 고강력 강판을 적용한 튼튼한 차체설계로 충돌 시 효과적으로 충격을 분산하는 동시에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 등 기본 안전사양을 적용해 안전성을 월등히 높였다.

GM대우 마이크 아가몬 사장은 “보다 경제적인 2.4모델 출시로 더 많은 소비자가 알페온 럭셔리 세단이 제공하는 최고의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정기자 ckjang@

이강본 전북銀 전 노조위원장

고용노동부 상임위원 위촉

전북은행 지역 공헌부 이강본 부장(전 노조위원장)이 19일자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임용됐다.

이번 상임위원 자리는 2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노동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 심판하는 준 사법기관으로 주로 노동부 관료들이 임용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선출직 노조위원장 출신의 상임위원 임용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강본 위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으로 위원회의 신뢰를 높이고, 노사갈등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조정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강본 부장(전 노조위원장)이 19일자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임용됐다.

김민수기자 kimws@